

제273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완주군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월 11일(수) 09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식 순

1. 개 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5. 개 회 사
6. 폐 식

(09시00분 개식)

○ 의사팀장 강정숙

지금부터 제27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습니다.

○ 의장 서남용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

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계묘년 토끼의 해입니다. 웅크렸던 토끼가 더 멀리 뛸 수 있듯이 계묘년 토끼의 해는 우리 완주군의 경제가 웅크렸던 만큼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아마도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담게 되면 기존에 있던 맛과 섞여 그 신선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생겨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난 민선7기까지 우리 완주군은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정책도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이어 새로 출범한 민선8기에 걸고 있는 군민들의 기대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민선7기의 사업을 연속적으로 이어오며 온전한 민선8기만의 정책을 준비하는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2023년은 진정한 민선8기의 정책을 펼쳐가는 아주 중요한 첫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개최하는 첫 임시회는 민선8기의 의지를 보여주는 첫 단추입니다. 과연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낡은 부대에 옮겨 담아야 하는 것인지는 우리 군민 여러분이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완주군의회는 ‘귀를 씻고 공손하게 듣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이공청(洗耳恭聽)’을 가슴에 새기고 2023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완주군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것입니다.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도 의회와 소통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 소통의 첫 번째는 먼저 듣는 것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소통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 짧게 진행되는 임시회지만, 이번 임시회가 그 소통의 첫걸음이 되길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 보여주신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해 더욱 발전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들이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그 역량을 더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군민들과의 소통에 앞장서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2023년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한해를 되돌아봤을 때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완주군 발전을 위해 함께 동행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모쪼록 올 한해 모든 의정활동이 군민만을 바라 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 해의 시작은 희망과 꿈이 가득합니다. 1월 1일 첫 해를 바라보며 가슴에 새긴 목표가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완주군이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길을 잃지 않고 달려 나갈 수 있도록 그 저력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웅크렸던 토끼는 더 멀리 뛸 수 있습니다. 웅크렸던 만큼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열정을 한곳에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해도 어김없이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완주군 발전을 응원하실 완주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사팀장 강정숙

이상으로 제27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09시09분 폐식)